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경험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및 모성애착행위 비교

Comparison of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with Normal Vaginal Delivery: Mo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Newborn's pain Response and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저자
(Authors) 박미라, 신영희
Meera Park, Yeonghee Shin

출처
(Source)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7\(2\)](#), 2013.7, 282-291 (10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7\(2\)](#), 2013.7, 282-291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46417>

APA Style 박미라, 신영희 (2013).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경험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및 모성애착행위 비교.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7(2), 282-291.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3
2016/07/05 14: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르보이어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경험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및 모성애착행위 비교

박미라¹ · 신영희²

경산대학교 간호학과¹, 계명대학교 간호대학²

= Abstract =

Comparison of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with Normal Vaginal Delivery: Mo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Newborn's Pain Response and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Meera Park¹ · Yeonghee Shin²

*Assistna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 University¹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²*

Objectives: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is known as less stressful and humane delivery method for both mothers and newbor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with normal vaginal delivery in terms of mothers' perception of the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newborn's pain response and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Materials and Methods: Sample of this study included forty one mothers in the Leboyer group and thirty three normal delivery mothers from two women's hospitals during the period of 28th February to 15th April 2010. All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Marut and Merc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0~10 numeric scale of labor pain, Lawrence's newborn pain response, and Cropley, Lester, Pennington's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mothers' with the Leboyer method of childbirth on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t=7.47$, $p<.001$) and on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t=10.39$, $p<.001$) and lower scores on maternal post-labor pain ($t=-2.51$, $p=.014$) as well as on the newborn's pain ($t=-5.15$, $p<.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for pre-labor pain.

Conclusion: Mothers with Leboyer childbirth method reported more positive maternal childbirth experiences, maternal attachment behavior, and less newborn's pain response and less post-labor pain than mothers in the comparison group with the exception of pre-labor pain.

Key Words: mothers, newborn, perception, childbirth, attachment, labor pain

※이 논문은 박미라(지도교수: 신영희)의 석사 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신영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53-580-3962, 팩스번호: 053-580-3916, E-mail: yshin@kmu.ac.kr

원고접수: 2013년 4월 30일, 원고심사: 2013년 4월 30일, 원고채택: 2013년 7월 10일

서 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의 총 출생아 수는 465,892명이었고 이중 98.2%가 병원에서 출산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9).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의료시설의 발달, 안전한 출산을 위해 산모들이 병원 분만을 선호하여,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분만이 대부분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병원에서의 출산은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과도한 의료처치와 비인격적인 출산경험, 모아분리 등에 대한 산모와 가족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고위험 출산이 아닌 정상 분만임에도 불구하고 흡입분만, 유도분만, 척추마취 등이 일상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여기에 병원의 낮은 환경과 지지해줄 의료진의 부재와 불친절은 산부의 분만 경험을 부정적인 체험으로 지각하게 만들었다(Kim, 2001).

분만경험은 모든 산부에게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산모는 아기와의 애착관계가 쉽게 이루어지고 사랑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모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성역할 획득 및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갖는다(Kim, 2007) 반면, 분만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산모는 보통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기와의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et al, 2010).

분만 시 자궁근육의 수축과 태아가娩출되는 과정에서 산모는 필연적으로 통증을 경험하며(Oh et al., 2006), 산부의 분만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체험이다(Hur, 2001).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출산경험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으로 삼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여(Jang, 2006), 라마즈, 소포롤로지, 가족분만법, 수중분만, 그네분만, 르봐

이에분만 등 다양한 대안분만법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들 대안분만법들은 주로 출산하는 산부의 통증을 감소시켜 분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이었다. 이중 르봐이에분만법은 산부도 배려하지만 출생하는 아기를 더 배려하는 분만법이다.

1974년 프레드릭 르봐이에가 저술한 '평화로운 탄생'에서 출생 시 아기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분만을, 눈부시게 밝은 조명과 의료진의 소란스런 소리, 여러 의료기구의 달그락 거리는 소리 등의 불안한 환경에서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엉덩이를 맞고 스스로의 리듬과 상관없이 호흡을 하고 울음을 터뜨려야 하는 등의 분만자체가 고통스런 상황이라고 보았다. 고통스런 탄생순간은 아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는 아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태아를 배려한 출산방법으로 르봐이에분만을 제시하였다. 이 분만은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시각·청각·촉각·감정 등이 있다고 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자극을 감소시키는 분만법으로, 우선 태아의 감각 중 가장 발달한 감각이 청각이므로 출생 시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하고 태아의 시력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분만실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또 출산 후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산모의 품에 안도록 하여 모자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탯줄호흡에서 폐호흡으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분만 5분 후에 탯줄의 박동이 그친 후 탯줄을 자른다. 출산 후 태아를 자궁과 같은 따뜻한 온도의 물에서 목욕시켜 중력에 적응하는데 돕는 것이 르봐이에분만법의 원칙이다(Leboyer, 1974).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눈을 깜빡이고 미소짓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이 분만법이 아기가 행복한 분만법으로 불리고(Jang, 2006), 분만과정에 배우자가 참여하여 출산을 도움에 따라 산부의 분만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긍정적인 모아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Kim, 2001).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안 분만법 중에서 라마즈 분만법이나 둘라 분만법을 기존의 일반질식분만법과의 비교를 주로 산부의 분만경험, 모아애착, 모아상호작용, 모성 정체감에 대해 조사하였으나(Jang & Park,

2002; Juon, & Yoo, 2004; Kim, et al, 2003; Park, Choi, Lee, & Jin, 2008; Pascali-Bonaro & Kroeger, 2004), 르봐이에 분만법의 효과에 대한 조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르봐이에 분만법이 일반 질식분만법에 비해 산부의 분만경험 지각, 모성애착행위, 신생아의 통증 반응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30병상 이상의 여성전문병원 중에서 월 분만 100건 이상의 병원 중 A, B, C 3곳을 임의 선정하였다. A병원은 2007년 개원과 동시에 르봐이에분만법을 시행해 왔으며, 나머지 B병원과 C병원에서는 일반 질식분만법을 시행해 왔다. 연구대상자는 A병원 41명, B병원 19명, C병원 14명으로 총 74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두 본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산모들이었다.

연구대상 산모들의 선정기준은 20~45세의 정상 질식분만을 한 산모로서, 출생 시 체중이 2.5~4.5 kg, 재태기간 38~41주, 1분 아프가 점수가 8점 이상인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하였다. 쌍생아 출산,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르봐이에분만군이나 일반질식분만군 모두 자궁개대 6~7 cm까지 경막의 마취와 분만 시 외음 절개술을 받았다.

2. 연구도구

1) 분만통증 측정도구

분만통증 측정은 분만 전 가장 통증이 심했을 때와 분만 후 통증이 가장 심했을 때의 각각의 통증정도를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분만실에서 대상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통증 정도는 0 (통증 없음)~10 (도저히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픔)의 숫자통증척도로 수평선

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을 의미한다.

2) 신생아 통증반응 척도(Neonatal Infant Pain Scale; NIPS)

본 연구에서는 Lawrence 등(1993)이 개발한 신생아 통증반응 척도를 Yoon (200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생아 통증반응 측정은 제대절단직후 연구자나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측정하였다. 통증 반응이 나타날 경우, 1점, 혹은 2점,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즉, 통증반응 척도는 얼굴표정(0~1점), 울음(0~2점), 호흡양상(0~1점), 팔 움직임(0~1점), 다리움직임(0~1점), 각성상태(0~1점)의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최저 0점(통증 없음)에서 최고 7점(심한통증)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0.90$ 이었다.

3) 분만경험지각 측정도구

분만경험은 규칙적인 자궁수축부터 태아가 출산되고 태반이 박리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산부가 지각했던 느낌이나 의미를 말한다(Lee et al, 2010). 분만경험지각 측정도구는 Maut와 Mercer (1979)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들이 번역한 후 원본의 의미전달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이중 언어자(bilingual)의 검토를 받았다. 원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였을 때 내용이 중복되는 3 문항은 삭제하고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만경험지각 측정은 분만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도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경험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Maut와 Mercer (1979)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0.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0.88$ 이었다.

4) 모성애착행위 측정도구

애착은 한 개인이 특정한 다른 개인과 형성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산모와 아기의 상호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표현된다(Ainsworth, 1973). 본 연구에서 모성애착행위는 출산 후 산모가 아기에게 느끼는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pley 등(1976)이 제작한 Maternal Attachment Tool을 Kim (200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성애착행위 측정은 분만 후 30시간 이내에 모유수유 시 연구자와 훈련받은 연구원이 관찰법으로 측정하였고,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외모,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10문항),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모아상호작용(12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나타남) 혹은 0점(안 나타남)으로 측정하였고, 최저 0점에서 최고 22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s $\alpha=0.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0.85$ 이었다.

3. 검사자간 신뢰도 훈련

관찰자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3회에 걸쳐 4명의 연구보조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5명의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 제대절단직후 아기 모습과 2) 산모가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모습을 모유수유실에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각각 신생아 통증반응과 모성애착행위 관찰자간 신뢰도 훈련을 하였다. 그 결과, 관찰자간 신뢰도는 90~100%의 일치도를 보였다.

4. 분만환경

1) 르봐이에분만 환경

르봐이에분만법은 산모와 아기에 대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출산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만방법으로 산모에게는 신체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출산아를 위해서는 자궁 밖의 급격한 환경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에서 고안된 분만법이었다(Leboyer, 1974).

본 연구에서 르봐이에분만군의 분만실은 소리자극과 방의 밝기를 최소화하고, 분만 전과정 동안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지지하며 배우자도 함께 참여하였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만실 환경을 위하여 조명과 소음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의료기구가 서로 부딪쳐서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였으며, 의료진간 의사소통을 할 때도 속삭이는 정도로 낮은 소리로 얘기하여 소리를 최소한으로 낮추었으며, 방의 밝기는 낮에는 자연광으로, 밤에는 100~200 Lux 정도의 조명을 사용하여 형체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르봐이에분만 전문인력을 특별히 투입하여 분만과정을 돕고, 배우자를 함께 참여시켜 산부 결에서 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하였으며, 분만 후 아기와 피부접촉을 통해 애착형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아기가 출생하면 엄마 배위에 아기를 몇 분 동안 얹어 놓은 다음 제대박동이 멈춘 후 천천히 탯줄을 잘랐고, 아기를 양수와 비슷한 37℃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구어 중력에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아기가 스스로 호흡할 때 까지 인위적으로 자극하여 울리지 않았다.

2) 일반질식분만실 환경.

일반 질식분만군은 분만예정일에 태아가 합병증 없이 두정부로 24시간 이내에 질을 통해서 출산하는 경우를 비교군으로 선택하였다(Lee et al., 2010). 산모는 분만대기실에서 진통하다가 자궁경관 소실이 80~90%되면 분만을 위해 분만실로 이동하였다. 분만실의 조명은 1,000 Lux 정도이었으며, 소음은 74~82 dB 정도였고, 아기가 첫 울음을 울 경우 100 dB정도가 되었다. 분만실의 조명과 소음의 자극을 감소하기 위한 특별한 중재를 하지 않았으며, 병원 규정에 따라 분만 과정에 배우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고, 아기가 출생하면 엄마에게 아기의 얼굴을 보여준 후 아기는 신생아 실로 옮겨졌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설명하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D시에 위치한 3개의 여성전문병원에서 2010년 2월 28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자료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각 병원의 간호부장과 해당부서 수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위해 4명의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모성애착행위 측정과 신생아통증 반응 측정에 대해 사전교육과 검사자간 신뢰도 훈련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분만 후 1시간부터 분만 후 30시간 이내에 연구자 혹은 연구보조원이 분만실과 모유수유실에서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익명이 보장되고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르브외예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확인을 위해 t-test 혹은 χ^2 -test을 하였다.
- 3) 르브외예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통증, 신생아통증반응, 분만경험지각, 모성애착행위의 차이검정을 위해 평균평점, 표준편차, t-test를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4)

		Leboyer (n=41)		NVD (n=33)		t/ χ^2	p
		n	(%)	n	(%)		
Maternal age (yr)*		30.12	2.71	30.24	3.78	-0.16	.874
Duration of marriage (yr)*		3.24	2.46	3.18	3.04	-0.10	.923
Education	≤High school	5	(12.2)	7	(21.2)	12.21	.002
	College	21	(51.2)	25	(75.8)		
	≥University	15	(36.6)	1	(3.0)		
Employment	Yes	20	(48.8)	9	(27.3)	3.55	.060
	No	21	(51.2)	24	(72.7)		
Religious affiliation	No	19	(46.3)	17	(51.5)	1.94	.584
	Christian	7	(17.1)	4	(12.1)		
	Buddhist	13	(31.7)	8	(24.2)		
	Catholic or etc.	2	(4.9)	4	(12.1)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7	(17.1)	9	(27.3)	5.02	.170
	201~300	18	(43.9)	18	(54.5)		
	301~400	13	(31.7)	6	(18.2)		
	≥401	3	(7.3)	0	(0)		

*M (SD)

Abbreviations: NVD, normal vaginal delivery

원 군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교육정도를 제외하고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군 모두 산모의 평균연령은 약 30세였고, 결혼기간도 평균 3년이었으며, 대부분 전문대졸이상이었다. 르봐이에분만군이 일반질식분만군에 비해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두 군 모두 월수입 201~300만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분만횟수, 계획된 임신여부, 임부교실 참여유무, 태교유무, 출생시 체중, 기대성별, 아기 성별 등에 대해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산과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만횟수는 각각 평균 1.41회, 1.36회였고, 계획된 임신 여부는 각각 46.3%, 39.4%였으며, 임부교실 참여는 각각 26.8%, 24.2%였으며,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4)

		Leboyer (n=41)		NVD (n=33)		t or χ^2	p
		n	(%)	n	(%)		
Parity*		1.41	0.50	1.36	0.60	0.40	.692
Planned pregnancy	Yes	19	(46.3)	13	(39.4)	0.36	.549
	No	22	(53.7)	20	(60.6)		
Prenatal class participation	Yes	11	(26.8)	8	(24.2)	6.06	.800
	No	30	(73.2)	25	(75.8)		
Prenatal education	Yes	26	(63.4)	27	(81.8)	3.05	.081
	No	15	(36.6)	6	(18.2)		
Baby's birth weight (kg)*		3.29	0.40	3.30	0.38	-0.05	.958
Maternal expectation of baby's sex	Male	17	(41.5)	10	(30.3)	2.99	.224
	Female	13	(31.7)	17	(51.5)		
	Don't care	11	(26.8)	6	(18.2)		
Baby's sex	Male	27	(65.9)	22	(66.7)	0.01	1.000
	Female	14	(34.1)	11	(33.3)		

*M (SD)

Abbreviations: NVD, normal vaginal delivery

Table 3. Comparison of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with Normal Vaginal Delivery: Mo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and Newborn's Pain Response

(N=74)

	Leboyer (n=41)		NVD (n=33)		t	p
	M	SD	M	SD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91.02	13.80	69.64	9.97	7.47	<.001
Before delivery pain	8.95	1.45	9.06	1.45	-0.32	.743
After delivery pain	3.39	2.63	5.15	3.42	-2.51	.014
Newborn's pain response	3.07	0.69	4.27	1.28	-5.15	<.001

Abbreviations: NVD, normal vaginal delivery

태교도 각각 63.4%, 81.8%였다.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도 각각 3.29 kg, 3.30 kg으로 비슷하였으며, 두 군 모두 남아가 많았고, 남아를 더 많이 기대하였다.

3.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경험 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정도 비교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경험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만경험지각은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91.02점으로 일반질식분만군의 69.6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7.47$, $p<.001$). 분만 전 통증에서는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8.95점, 일반질식분만군 평균 9.0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0.32$, $p=.743$), 분만 후 통증에서는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이 각각 평균 3.391점과 5.15점으로 르봐이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증이 낮았다($t=-2.51$, $p=.014$).

신생아 통증반응은 르봐이에분만군($M=3.07$ 점)이 일반질식분만군($M=4.27$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5.15$, $p<.001$).

4.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모성애착행위 비교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모성애착행위는 Table 4와 같이 르봐이에분만군(16.95점)이 일반질식분만군(8.70점)에 비해 모성애착행위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10.39$,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시는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7.32점으로 일반질식분만군의 3.8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8.00$, $p<.001$), 상호작용도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9.63점으로 일반질식분만군의 4.8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0.46$, $p<.001$).

고 찰

본 연구는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경험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및 모성애착행위 정도를 비교하였다.

분만경험지각에서는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91.02점, 일반질식분만군은 69.94점으로 두 그룹간의 분만경험지각의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르봐이에분만법이 분만경험지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통증은 어느 분만법과 다를 수 없지만 의료진과 가족의 지속적인 지지 속에 조용하고도 인격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분만과정을 중시하는 르봐이에분만법은 기존 일반질식분만법보다 만족감이 높고 분만과정을 긍정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Leboyer, 1974).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대일 분만지지를 한 경우(Hur, 2001)와 가족분만을 한 경우(Jang & Park, 2002)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분만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Park 등(2008)의 Doula식 분만지지간호를 제공받은 경우와 제공받지 않은 경우 분만경험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배우자가 아닌 일반 듀라의 지지로는 충분한 정서적 지지 효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분만경험은

Table 4. Comparison of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with Normal Vaginal Delivery: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N=74)

	Leboyer (n=41)		NVD (n=33)		t	p
	M	SD	M	SD		
Identification	7.32	2.01	3.85	1.66	8.00	<.001
Interaction	9.63	1.93	4.85	1.99	10.46	<.001
Total	16.95	3.54	8.70	3.22	10.39	<.001

Abbreviations: NVD, normal vaginal delivery

모성역할형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도에 도움이 되므로(Kim, 2001; Hwang, 2003) 간호제공자들은 부정적인 분만경험지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미연에 사정하고, 체계적인 간호중재를 통해 통증을 줄여주어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Pascali-bonaro & Kroeger, 2004).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통증 비교에서 분만 전 통증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분만 후의 통증정도에서는 르봐이에분만군이 일반질식분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르봐이에 평균 3.39점, 일반질식분만군 5.10점, $p=.014$).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 산모 모두 분만 종료 후안도감, 평온, 만족감, 그리고 경이감 등을 느끼겠지만 특별히 르봐이에분만군의 경우, 배우자가 곁에서 특별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친밀감을 나누면서 분만의 고통이 경감되었기 때문에 일반질식분만군보다 분만 후 통증을 덜 느끼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Pascali-bonaro & Kroeger, 2004). 또한 르봐이에분만법은 조용하고도 자연적인 분만과정을 중시하여 다른 대안 분만법과는 달리 분만과정의 통증을 잊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만 전 통증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지 제한점은 분만통증 측정에서 분만 전과 분만 후 가장 통증이 심했을 때의 통증정도를 통증이 나타났을 때 즉시 측정한 것이 아니라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측정하였던 점은 recall bias를 범할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족분만을 제공한 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을 비교했을 때 분만통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Jang & Park, 2002; Oh et al., 2006). 통증에 대한 또 다른 중재로 음악요법을 시도한 Jo (1988)의 연구에서도 분만통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대일 분만지지를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분만통증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Hur, 2001), Doula 분만지지간호를 받은 산모들이 기존 지지간호를 받은 산모들보다 잠재기의 분만통증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통증이 심한 활동기와 이행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8). 분만 동안

배우자나 가족 또는 듀라를 통한 지지가 분만통증에 미치는 영향에는 일관성이 없으므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통증반응 비교에서 르봐이에분만군이 일반질식분만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질식분만과 르봐이에분만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일반질식분만은 눈부시게 밝은 조명 아래 의료진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의료기구들의 마찰 소리 속에서 분만이 이루어지며, 출생하는 아기는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맞고 울음을 울어야하는 상황인 반면 르봐이에분만은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인격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만이 진행되므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고통을 적게 주게 되며 심지어는 태어나는 아기가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짓는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하여(Jang, 2006), 르봐이에분만은 모아양측에 도움이 되는 분만법이라 할 수 있다.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모성애착행위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르봐이에분만군이 일반질식분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분만시 아기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던 Hwang (2003)과 Lee 등(2003)의 연구에서 모아애착 반응 즉, 언어접촉, 시각접촉, 피부접촉 반응을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출생 초기의 민감한 시기에 부모와 아기와의 피부접촉과 상호작용이 부모와 아기 모두의 애착행동을 높여준다는 Ainsworth (1973)의 주장을 지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통 속에서도지만 평화롭고 인격적인 출산과정을 거친 르봐이에분만 역시 분만과정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분만과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그 과정을 함께 극복한 신생아에게 더 강한 애착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르봐이에분만이 모아양측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할만한 분만법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럴 경우, 실제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고비용 분만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르봐이에분만법은 산부의 분만경험지각을 긍정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분만 후 통증을 감소시키고,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비폭력적 환경조성과 인격

적 시술로서 신생아 통증반응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모성애착행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르봐이에분만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의 분만 경험지각, 분만통증, 신생아 통증반응 및 모성애착행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D시에 위치한 여성전문병원 중에서 월 분만 100건 이상의 30병상 이상의 병원 중 A, B, C 3곳을 임의 선정하여 르봐이에분만군 41명, 일반질식분만군 33명, 총 74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A병원에서는 르봐이에분만법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B와 C병원에서는 르봐이에분만법외의 일반질식분만을 적용하였다. 2010년 2월 28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자료수집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만경험지각은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91.02점으로 일반질식분만군의 69.6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7.47$, $p<.001$).

분만 전 통증에서는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8.95점, 일반질식분만군 9.0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0.32$, $p=.743$), 분만 후 통증에서는 르봐이에군과 일반질식분만군이 각각 평균 3.391점과 5.15점으로 참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증이 낮았다($t=-2.51$, $p=.014$).

신생아 통증반응은 르봐이에분만군($M=3.07$)이 일반질식분만군($M=4.2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5.15$, $p<.001$).

모성애착행위는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16.95점, 일반질식분만군이 8.70점으로 르봐이에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10.39$,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시는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7.32점으로 일반질식분만군의 3.8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8.00$, $p<.001$), 상호작용도 르봐이에분만군이 평균 9.63점으로 일반질식분만군의 4.8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0.46$, $p<.001$).

결론적으로 르봐이에분만군은 일반질식분만군에 비해 산모의 분만경험지각이 긍정적이었으며, 모성애착행위 정도가 높았고, 산부의 산후 분만통증과 신생아통증 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앞으로 르봐이에분만법을 배우자에게 교육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며 또한 르봐이에분만법의 효과연구를 위해 연구조건을 잘 통제된 실험연구디자인에 의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산모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을 확대하고 많은 수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Ainsworth M. The development of mother-infant attachment.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3;3:1-94
- Croplay C, Lester P, Pennington S.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Current Practice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Nursing 1976;1:16-28
- Jang MH. The birth project : The commercialized and individualized way of birth-process in South Korea since late 1990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6
- Jang MJ, Park MS. Effect of Family-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 Delivery Room on the Childbirth of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3):371-379
- Hur MH. Effects of one-to-one Labor Support on Labor Pain, Labor Stress Response, Childbirth Experience and Neonatal Status for Primipara.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1;7(1):188-202
- Hwang EJ. (The)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and Role Confidence to Newborn Between Participation Group and Non-Participation Group in Family Delivery Room.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2003
- Kim HJ. The labor and birth in the physiological aspects of mental. Seminar Gentle Birth 2001; 107-116

- Kim KY. Effects on Maternal-Infant Attachment by the Taegyo Perspective Prenatal Clas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0
- Kim YK. The effect of back massage on labor pain, labor duration and childbirth experience in women during labor.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2007
-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8 Birth statistics. 2009. Available from: URL: <http://kostat.go.kr>
- Kroeger M, Smith L. Impact of birthing practices on breastfeeding: Protecting the mother and baby continuum. Jones and Bartlett, Boston, 2004
- Lawrence J, Alcock D, McGrath P. The development of tool to assess neonatal pain. Neonatal Network 1993;12:59-66
- Leboyer F. Birth without Violence. Random House, Toronto, 1974
- Lee KH, Lee YS, Kang KH, Kang MJ, Ko MS, et al. Maternity & Women Health nursing. Hyunmoon, Seoul, 2010
- Lee KJ, Chang CJ, Jo HS. The Effects of a Full Body Massage on Apgar Score,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3;9(4):359-367
- Maurt JS, Mercer RT.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Nursing Research 1979;28(5):260-266
- Oh JH, Lee HJ, Kim YK, Min J, Park KO. The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and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Delivery-Recovery Room on Primiparas' Anxiety, Labor Pain and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6;12(2):145-156
- Park KH, Choi JS, Lee JH & Jin BK. Effects of Doula Support in LDR (Labor-Delivery-Recovery) on Anxiety, Labor Pain, and Perceived Childbirth Experience of Primipar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8;14(3):87-97
- Pascali-Bonaro D, Kroeger M. Continuous female companionship during childbirth: A crucial resource in times of stress or calm. Journal of Midwifery and Women's Health 2004;49(4):19-27
- Yoon HB. Pain Relieving Effect of Intraoral Sucrose Replacement in Neonat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1;7(1):35-60